



**2016년 04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오월답사 안내

: 연구원과 5·18기념재단,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5월 민중항쟁을 통해 본 지역공동체와 역사 치유” 답사가 오는 4월 9일(土) ~ 4월 10일(日)에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오월길 답사 세부일정

| 일                             | 정           | 내 용                     |
|-------------------------------|-------------|-------------------------|
| <b>1일차<br/>&lt;4월 9일&gt;</b>  | 09:00       | 전주대 학생회관 출발             |
|                               | 09:00~10:30 | 전주대학교 ~ 5·18국립묘지 도착     |
|                               | 10:30~12:00 | 구묘역, 신묘역 참배 및 추모관 방문    |
|                               | 12:00~12:30 | 점심 식사                   |
|                               | 12:30~13:00 | 교육관 등록 및 숙소배정           |
|                               | 13:30~16:00 | (구)전남도청 및 주요 사적 답사      |
|                               | 16:00~17:30 | 트라우마센터 방문(5·18민중항쟁과 치유) |
|                               | 18:00~19:00 | 저녁식사                    |
|                               | 19:00~21:00 | 조별 과제                   |
| <b>2일차<br/>&lt;4월 10일&gt;</b> | 08:00~09:00 | 아침식사                    |
|                               | 09:30~10:30 | 영상물 시청                  |
|                               | 10:30~11:30 | 상무대 영창체험 및 주먹밥 체험       |
|                               | 11:30~12:00 | 설문조사                    |
|                               | 12:00~13:30 | 전주대학교 이동                |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세부일정 안내

: 6월 26일(日)~7월 1일(金)에 5박 6일간 예정되어 있는 해외역사탐방 세부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참가비는 1,500,000원이며 전일정 숙박 및 식사, 만찬비용 등이 전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경비(기념품 구입 등등)를 제외한 일체 불포함 경비 없습니다.

\* 참가신청 : 4월 2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    | 도시                            | 답사지  |
|----|-------------------------------|--|
| 1일 | 인천<br>블라디보스톡                  | 루스키 섬<br>독수리전망대<br>조명희 기념비<br>신한촌<br>울 브린너 생가<br>해안 - 노을과 술  |
| 2일 | 블라디보스톡<br>크라스키노<br>슬라비얀카      | <블라디보스톡><br>기차역, 여객터미널, 혁명광장, 잠수함박물관, 고려사범대학, 시장과 백화점<br><한인마을><br>아지미, 시지미, 포세트<br>치신허 - 최초마을<br>크라스키노(연추) 등등 |
| 3일 | 슬라비얀카<br>핫산<br>크라스크노<br>우수리스크 | 두만강철교(한중러 국경)<br>핫산역<br>라즈돌리노예(하마탕)<br>88국제여단 숙영지<br>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
| 4일 | 우수리스크                         | 이상설 유허지, 발해성터, 최재형 고택, 전로한족총회 개최지,<br>고려사범전문학교 등 고려인 유적<br>러시아정교당, 4월참변 유적지 등 러시아 유적                           |
| 5일 | 하바롭스크                         | 한인사회당 관련 유적지김알렉산드라 관련 유적<br>강제이주 관련 유적지<br>김일성부대 숙영지<br>볼로차예프전투 유적지<br>하바롭스크 도시 관광<br>아무르강 유람                  |
| 6일 | 하바롭스크<br>인천                   | 아쉬움을 남기고...<br>다음 해를 기약...   |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4월 19일 | 잘 돼 갑니다 / 효자동 이발사     |     |
| 5월 18일 | 꽃잎                    |     |
| 6월 25일 | 태백산맥                  |     |
| 7월 中   | 답사(추후 계획공지)           |     |
| 8월 15일 |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쉼들러 리스트 |     |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4월 13일  | 화암사와 불명산(해발 480m / 완주군 경천면)     |     |
| 5월 21일  |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     |
| 8월 20일  | 봉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     |
| 9월 24일  |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     |
| 10월 22일 |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     |
| 11월 19일 |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     |
| 12월 17일 | 쑥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4월 04일(月) : 주간회의
- 04월 07일(木) : 김제지역자활센터, 정읍북부노인복지관 연구원 협약식
- 04월 09일(土) ~ 10일(日) : 광주 오월길 답사

## ■ 옛 詩와의 만남

### 春 望            봄날에 멀리 바라보다가

|       |                       |
|-------|-----------------------|
| 國破山河在 | 도성은 깨졌어도 산하는 상기 남아    |
| 城春草木深 | 성 안에 봄이 들어 초목은 깊었나니,  |
| 感時花濺淚 | 시절이 소란해서 꽃을 봐도 눈물 나고  |
| 恨別鳥驚心 |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 놀라는 가슴. |
| 烽火連三月 | 타오르는 봉화가 석 달이나 이어지니   |
| 家書抵萬金 | 집에서 오는 편지가 만금처럼 소중하고, |
| 白頭搔更短 | 하얗게 센 머리는 빗을수록 짧아져    |
| 渾欲不勝簪 | 이제는 비녀조차 지를 수가 없구려.   |

### ■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자(字)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안사(安史)의 난으로 사방을 유랑하다가, 장강의 배 위에서 숨을 거뒀다. 이백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시는 이백과 달리 웅혼하면서도 침통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 ■ 감 상

-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곡강(曲江)의 한 굽이에 우뚝 솟은 언덕이다. 곡강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동남쪽을 감도는 물길인데, 아름다운 경치로 일찍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곳이다.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현종(玄宗)이 이곳에 별궁(別宮)을 지어놓고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연회를 베풀며 노닐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난리 통에 반란군의 무리들에게 사로잡힌 두보가 울음을 삼켜가며 남몰래 이곳을 찾았다. 별궁의 문들은 모두가 잠겨있어, 사람들의 출입이 뚝 끊어졌다. 이제 현종은 축 땅으로 유배를 당했고, 마외파(馬嵬坡)에서 목이 떨어진 양귀비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떠났어도 여전히 무심하게 흐르는 강물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아름답고 화려했던 옛날을 돌이켜보는 두보의 애가(哀歌)이다.

봄은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두보에게는 암울하고도 가슴 아픈 계절로 봄이 찾아왔다. 공간적인 배경마저 폐허로 남은 장안의 성터이니, 반란군의 분탕질로 황폐해져 스산하기가 그지없는 장소이다.

야속하리만치 덧없는 절기의 변화이다. 국난(國難)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은 시나브로 찾아들었다. 무너진 성터에는 초목만이 질푸름으로 깊어졌다.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온 꽃 한 떨기를 보고 두보의 눈물이 주룩 흘러내린다.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 현실이기에, 꽃이 아름답다는 느낌보다 비애가 선뜻 앞서는 것일까? 가족과의 이별이 얼마나 서럽기에, 짝을 부르는 봄날의 고운 새 소리에 깜짝 놀라는 심정일까?

왜 그럴까? 크게는, 나라의 위급과 전란을 알리는 봉화가 석 달 내내 타오르는 애달픈 나날이다. 작게는, 혼란한 와중에 가족과 헤어져 식구들의 안부를 담은 편지 한 통이 만금처럼 소중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혼란 통에 포로 신세가 된 외톨이 두보의 하얗게 센 머리는 자꾸만 빠지고 모지라진다. 시나브로 늙음이 찾아들어 기력까지 쇠잔해졌다. 머리에 꽃은 비녀마저 지탱하지 못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 남지 않은 새하얀 머리털이 두보의 체력과 건강을 상징한다. 개인적으로도 초라해서 서글프고, 외로워서 우울한 봄날이다.

## ■ 역사속의 오늘

### ○ 잠들지 않는 남도...1948. 4. 3

외로운 대지의 깃발 훑날리는 이녁의 땅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안치환 작사·작곡 잠들지 않는 남도 중>

해마다 4월이 되면 저 남쪽 끝 섬에서는 마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50여 년간 소리 없는 통곡으로 산자들은 한을 삼켜야했고 죽은 자들은 세월의 퇴적에도 유골마저 수습되지 못한 채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어야했다.

광복 직후의 당시 제주 사회는 6만여 명의 귀환 인구, 실직 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의 창궐, 극심한 흉년 등으로 겹친 악재와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의 오인으로 총격이 발포돼 민간인 여섯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가뜩이나 어지러운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 사회에는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이어졌다. 미군정은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사후 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했고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벌였다. 검속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그러는 동안 서북청년회는 온갖 테러와 횡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했고,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 급기야는 일선 지서에서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제주 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변해 갔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두 시. 총성과 함께 한라산 중허리의 오름마다 봉화가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12개의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 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 중지, 단독 선거 및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중)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체를 광풍에 휩싸이게 만든 날로부터 68년이 지난 제주에도 봄이 왔다.

4·3 추도식에서 해마다 합창되던 안치환의 '잠들지 않는 남도'는 2014년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어 불리더니 2015년 추도식 합창에서는 모차르트의 '레퀴엠 라크리모사'로 바뀌었고, 올 해 68주기 추도식에서도 여전히 불리지 못하게 되었다. 본 행사뿐 아니라 식전행사에서도 이 노래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었다.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 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 2조 정의를 통해,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사건을 정의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의 주체는 관리하고 개입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2006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유일하게 추념식에 참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대량학살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확히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대통령은 누구도 추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이유로 4·3 추념식에 불참했습니다.